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창윤^{1*} · 권민영¹ · 김남훈¹ · 김채현¹ · 김혜진¹ · 박지윤¹ · 신민숙¹ · 한은경^{2†}

¹을지대학교 간호대학(성남), 학생

²을지대학교 간호대학(성남), 교수

(2021년 5월 28일 접수: 2021년 6월 23일 수정: 2021년 6월 25일 채택)

Effects of Grit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Chang-Yoon Lee^{1*} · Min-Young Gwon¹ · Nam-Hoon Kim¹ · Chae-Hyeon Gim¹
Hye-Jin Kim¹ · Ji-Yun Park¹ · Min-Suk Shin¹ · Eun-Kyoung Han^{2†}

Department of Nursing, Eulji University

(Received May 28, 2021; Revised June 23, 2021; Accepted June 25, 2021)

요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간호대학생 19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20년 7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수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그릿($r=.328, p<.001$)과 사회적 지지($r=.334,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년, 그릿 및 사회적 지지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해서 그릿과 사회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요인을 포함시킨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제안한다.

주제어 : 그릿, 사회적 지지, 적응, 간호대학생, 학년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rit and social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96 nursing students and data collection was from July 1 to August 13, 2020.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grit($r=.328, p<.001$), social support($r=.334, p<.001$). Grade, grit and social support were found to b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some programs that include positive factors such as grit and social support for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Keywords : Grit, Social support, Adaptation, Nursing Students, Grade

†Corresponding author
(E-mail: haahaa21@hanmail.ne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아정체성을 찾고, 학문을 탐구하고 직업을 선택하여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대학생활 적응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 애착, 유대감을 갖고 학업생활을 영위하는 것 뿐 아니라 대학이라는 환경에서 학업 수행, 대인관계, 정서적 측면 등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1]. 대학생활을 통해 형성된 적응은 성인기 이후의 발달단계에서 요구되는 과업수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생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학업과 취업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며 대인관계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다[2]. 대학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학업 수행능력이 저하되고, 대인관계에서 고립감을 경험하며, 휴학과 편입 등을 통해 시간을 소모하고 경제적인 손실까지 야기된다[3]. 그러므로 청소년에서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성장을 준비하는 대학생활을 적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간호학과는 다른 학과에 비해 학업량이 많고, 임상실습 시간을 1000시간 이수해야 하는 실습교육과정으로 학업 부담감으로 스트레스와 소진을 이로 인해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4].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 동안 전문지식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소양을 습득하여 미래의 예비간호사로서 성장해야 하므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인내와 일관된 관심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도를 하거나 도전하는 힘의 원천이다[5]. 그릿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힘이다. 그릿은 분야와 관계 없이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인으로 재능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닌 살아가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와 성장할 수 있는 특성을 가졌다[6]. 대학생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표를 장기적으로 설정하고 실현해 나가는 시기가

므로 그릿은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필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한국으로 유학 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그릿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그릿 수준이 낮은 대학생에 비해 학업 중도 포기 비율이 낮았으며 대학생활 만족도와 학업 적응능력은 높다고 보고하였다[7]. Bowman 등[6]은 대학생의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만족도와 소속감은 높았고[6], 그릿 수준이 높으면 심리적 소진감은 낮았다고 보고되었다[8]. 많은 학업량과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그릿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위해 타인의 지원과 도움, 격려를 받는 사회적 상호관계[9]로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사회 환경적인 요인으로 중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인의 적응능력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이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 자신의 장점 및 취약점을 인식하고 갈등과 위기상황에 있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직접적인 사회적 지지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10]. 간호대학생들은 전공 교과과정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면서도 간호학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나가야 한다고 인식하여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11].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효율적으로 지지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의 주요 예측변수라고 하였고[12], 사회적 지지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이 높다고 하였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적응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13]. 그러므로 이들 변수들간의 명확한 규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그릿과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수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그릿,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그릿,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및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의 S시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집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의 중간 효과 크기 0.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예측요인 총 6개로 설정하여 산출했을 때 최소 표본 크기 132명이 산출되었으며, 수집된 총 204부 가운데 설문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누락이 있는 8부의 설문을 제외하여 총 196명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그릿

그릿은 Duckworth 등[5]이 개발한 척도를 Lim[14]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8개 문항으로 흥미유지 4문항, 노력지속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과 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im[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2.3.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Park[1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7개 문항으로 정서적 지지 6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2문항, 평가적 지지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1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2.3.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Jung과 Park[16]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9개 문항으로 대인관계 4문항, 학업활동 4문항, 진로준비 4문항, 개인심리 4문항, 사회체험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ung과 Park[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20년 7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S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자료수집 전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설문 응답의 익명성, 연구목적외로만 사용된다는 점, 연구참여의 철회, 연구 참여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 응답에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10~20분 정도였으며 응답 후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문구류를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2.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그릿,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를 이용하였다. 그릿,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37명(18.9%), 여자가 159명(81.1%)이었고, 학년에서는 2학년이 56명(28.6%), 4학년이 55명(28.1%), 3학년이 47명(24.0%), 1학년이 38명(19.4%)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적응 프로그램 참여에서는 '경험 있음'이 74명(37.7%), '경험 없음'이 122명(62.3%)이었다.

3.2. 그릿,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그릿,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그릿은 $3.51 \pm .37$ 점(1-5), 사회적 지지는 $4.07 \pm .56$ 점(1-5), 대학생활적응은 $3.36 \pm .56$ 점(1-5)으로 나타났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릿

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는 성별($t=-2.38, p=.009$), 학년($F=2.68, p=.048$), 대학적응 프로그램 참여경험($t=1.79, p=.038$)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2학년이 1학년보다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았다. 대학생활적응은 성별($t=1.32, p=.010$), 학년($F=8.02,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증결과 4학년은 1학년과 2학년에 비해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더 높았다 <Table 3>.

3.4. 그릿,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도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의 그릿,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적응 정도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와 같다. 대상자의 그릿과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r=.170, p=.017$). 그릿과 대학생활적응($r=.328, p<.001$),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r=.334,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3.5.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 대상의 그릿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대학생활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학년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9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37(18.9)
	Female	159(81.1)
Grade	Grade 1	38(19.4)
	Grade 2	56(28.6)
	Grade 3	47(24.0)
	Grade 4	55(28.1)
Experiences of adaptation program	Yes	74(37.7)
	No	122(62.3)

Table 2. The Degree of Grit,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of University (N=196)

Variables	M±SD	Range
Grit	3.51±0.37	1-5
Social support	4.07±0.56	1-5
Adaptation of university	3.36±0.56	1-5

Table 3. Differences of Grit, Social support and Adaption of Univers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6)

Characteristics	Categories	Grit		Social support		Adaption of university	
		M±SD	t/F (p)	M±SD	t/F (p)	M±SD	t/F (p)
			Scheffé		Scheffé		Scheffé
Gender	Male	3.57±.36	1.05	3.88±.73	-2.38	3.47±.67	1.32
	Female	3.50±.37	(.296)	4.12±.51	(.009)	3.33±.53	(.010)
Grade	1 ^a	3.45±.36		3.85±.71	2.68	3.09±.48	8.02
	2 ^b	3.47±.37	1.12	4.16±.48	(.048)	3.24±.58	(<.001)
	3 ^c	3.53±.37	(.343)	4.11±.51	a<b	3.43±.48	a<b<d
	4 ^d	3.57±.36		4.11±.54		3.59±.56	
Experiences of adaptation program	Yes	3.46±.37	-1.39	4.16±.47	1.79	3.47±.52	2.33
	No	3.54±.36	(.084)	4.02±.61	(.038)	3.28±.56	(.528)

Table 4. Correlations among Grit, Social support and Adaption of University (N=196)

Variables	Grit	Social support
	r(p)	r(p)
Social support	.170(.017)	
Adaption of University	.328(<.001)	.334(<.00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Facilitative Communication Ability (N=196)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5.44	5.27		2.93	.004
Gender(Ref: men)	-2.38	1.48	-.09	-1.61	.11
Grade	2.18	0.53	.22	4.12	<.001
Grit	1.08	0.11	.51	9.41	<.001
Social support	0.30	0.06	.27	4.87	<.001

F(p)=41.479, R²=.465, Adjusted R²=.454, Durbin-Watson=.2054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을 검증하기 전,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충족에 대한 검토 결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09~.58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독립적이었으며, Durbin Watson 통계량이 2.05로 2와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차한계(tolerance)는 .94~.96으로 모두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3~1.06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학생활적응의 영향요인은 학년(β =.22,

p <.001), 그릿(β =.51, p <.001), 사회적 지지(β =.27, p <.001)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45.4%였다.

4. 고 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평균 3.36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Jun, Jo와 Na[17]의 3.23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3.06점[18]보다 높았고, 4년제 일반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3.50점[19]보다 낮았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차이 결과를 살펴보면, 4학년에 비해 1, 2학년에서 대학생활적응이 낮게 나타났다. Cho[18]의 결과에서도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평균 점수가 본 연구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로 보여진다. 하지만 일반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3.50점보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3.36점으로 낮았다. Kawg[10]은 간호대학생들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학업부담이 크고, 임상실습을 병행하면서 환자와 보호자와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며 교육과정 내내 의료인이 되기 위해 엄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요구받기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이 낮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를 통해 1학년부터 단계별로 구성된 대학생활적응 중재 전략이 필요하고, 학업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교수방법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그릿은 5점 만점에 평균 3.51점으로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Yoon[19]의 연구 3.32점보다는 높았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Ham과 Lee[20]의 연구 3.46점과는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은 의료인이 되기 위한 이론 및 임상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끈기와 열정을 지니고 노력한 성과가 그릿 수준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사료된다. Jung과 Jeong[21]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그릿에 가장 영향을 미친 변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성과기반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했을 때 전공만족도가 상승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한 끈기와 열정을 의미하는 그릿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 요인을 고려한 간호교육과정 운영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4.07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wag[10],

Jun등[17]의 연구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을 더 잘하였고,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위축, 고립됨을 경험하여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17, 10]. 또한 교수, 부모, 친구의 지지는 대학생활 만족도를 증가시켜 대학생활적응을 높이는 지지요인으로 나타났다[22].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지지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지체계로 구성된 활동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그릿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그릿은 짧은 시간에 증가하기보다는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지속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그릿의 특성으로 여겨진다. Duckworth와 Gross[23]는 그릿은 순간적인 인내가 필요한 자기통제와는 다르다고 하였고,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특성임을 강조하였다. 그릿에 대해서 장기간의 시간에 걸쳐 파악한 연구가 없어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에 입학한 시점과 졸업한 시점에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성별, 학년, 대학 적응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적 지지는 상담 훈련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24]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소견이다. 그러므로 대학 차원에서는 타인과 피드백, 격려, 도움지원 등과 같은 지지적인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여자 간호학생에 비해 남자 간호학생에서 사회적 지지 정도가 낮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 비율이 균등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지만 이는 간호교육과정이 소수에 해당하는 남학생들 요구에 적합한 사회적 지지가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남자 간호학생들에게 관심이 필요하며 다양한 사회적 지지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그릿과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은 그릿과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Park과 Ahn[22]의 연구에서 그릿 수준이 높으면 성취해야 할 목표 수준이 높아져서 진로적응과 대학생활적응에 양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연구와 유사하다. 이는 자신이 이

루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끈기를 설명하는 그릿이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그릿을 매개변인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그릿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소견이다[20].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간호대학생들의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학년, 그릿,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학생활적응을 45.4%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Yoo[25]의 연구에서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다고 밝힌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소견이다. 그러므로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지도교수, 동료 및 선배들간의 유대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 요구된다. 특히 그릿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beta = .51, p < .001$). 그릿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끈기, 실패와 좌절등의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힘으로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더 잘하고 대학의 중도탈락률을 감소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26]. 그러므로 그릿과 사회적 지지의 특성이 반영된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와 그릿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학년별, 전공별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대학생활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중재 전략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 사회적 지지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높이기 위한 중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그릿과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그릿, 사회적 지지였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5.4%였다. 따라서 간

호대학생의 그릿 수준의 향상과 사회적 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학에서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릿과 사회적 지지 요인이 포함된 실효성 있는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그릿,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의 구조모형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학년, 그릿, 사회적 지지가 확인되었으므로 이 요인들을 고려한 대학생활적응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다양한 지역의 학생으로 확장하여 진행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넷째,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학년,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참여경험으로 조사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다양한 일반적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J.H. Lee, M.H. Yun, C.W. Kang, M.N. Ko, J.I. Ka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feasibility study of DEU GRIT scale for successful college life adaptation: focused on the college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20, No. 2 pp. 983-1006, (2018).
2. M. J. Park, Y. L. Ham, D. N. Oh, "Levels and their correlations of decision-making-competency, adjustment to college life,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in freshme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4 pp. 327-337, (2012).
3. J. Y. Kim, "Relationships between freshman's self-leadership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2, No. 6 pp. 43-56, (2013).

4. J. A. Park, E. K.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3 pp. 267-276, (2011).
5.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D. 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2, No. 6 pp. 1087-1101, (2007).
6. N. A. Bowman, P. L. Hill, N. Denson, R. Bronkema, "Keep on Truckin' or stay the course? Exploring grit dimensions as differential predictors of educational achievement, satisfaction, and intentions", *Social Psychology and Personality Science*, Vol. 6, No. 6 pp. 639-645, (2015).
7. S. N. Slick, C. S. Lee, "The relative levels of grit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otential dropping-put and university adjustment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In interational conference on Convergence Technology*, Vol. 4, No. 1 pp. 649-651, (2014).
8. A. Salles, G. L. Cohen, C. M. Mueller,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resident well-being", *The American Journal of Surgery*, Vol. 207, No. 2 pp. 251-254, (2014).
9. X. Dong, M. A. Simon, "Gender variations in the levels of social support and risk of elder mistreatment in a Chinese community population",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 29, No. 6 pp. 720-739, (2010).
10.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5 pp. 2178-2186, (2013).
11. S. Y. Min, "Adjustment experience of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Korean Academy Psychiatry Mental Health Nursing*, Vol. 15, No. 4 pp. 409-419, (2006).
12. J. Y. Kim, "Relationships Between Freshman's Self-Leadership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2, No. 6 pp. 43-56, (2013).
13. H. J. Jung, H. I. Chung, "Effects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1, No. 3 pp. 188-196, (2012).
14. H. J. Lim, "An exploratory study on grit's factor structure and its validity",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8, No. 2 pp. 169-192, (2017).
15.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s thesis, Yonsei University, (1985).
16. E. I. Jeong, Y.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ollege adjustment scale. education methodology stud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1 No. 2 pp. 69-92, (2009).
17. W. H. Jun, M-J. Jo, HJ. Na, "Relationships between anger expression, social suppor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3 pp. 219-228, (2015).
18. I. Y. Cho,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5 pp. 2937-2945, (2014).
19. J. H. Park, B. G. Yoon, "The effect of gri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academic achievement among healthcare maj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9 pp. 257-264, (2020).
20. S. M. Ham, J. H. Lee, "The eEffects of club activities to college life adaptation:

- based on the mediator of social support and gri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12 pp. 327-348, (2020).
21. M. R. Jung, E. Jeong,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8, No. 6 pp. 414-423, (2018).
 22. I. S. Park, S. S. Ahn,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career maturity-Focusing on th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9, No. 2 pp. 27-53, (2019).
 23. A. L. Duckworth, J. J. Gross, J. J. “Self-control and grit: related but separable determinants of succes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23, No. 5 pp. 319-325. (2014).
 24. E. J. Lee, Y. S. Song,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 leadership,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impacting on academic achievement of university students-focusing on the case of S universit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7, No. 6 pp. 63-83, (2018).
 25. K. H. Yoo, “A study on th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4, No. 3 pp. 269-278, (2018).
 26. S. J. Lee, J. Y. Park, “The eEffects of grit and stres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2 pp. 269-276, (2018).